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9년 2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에 정부포상
- 지속가능 기업의 가장 큰 명예 '비영리 로고 사용'
-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채용비리 피해자들 구제는?
- 지속가능 기업의 가장 큰 명예 '비영리 로고 사용'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Part 2

3. 청렴 위반 사례

- 정치인에게 승진 청탁
-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4. 지식마당

- 내부통제 – Separation of Duty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에 정부포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총 41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총 7개 단체, 10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1점, 권익위원장표창 67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기념식에 앞서 제1부 <국민권익 이야기>를 통해 국민권익보호에 힘쓴 국민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국민권익위에 바라는 역할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력 사건의 공익제보자 전용섭 씨를 초청해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와 고난, 그리고 청각장애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재조명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7개 단체, 101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1점, 포장 1점을 포함해 정부포상 41점, 권익위원장 표창 67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특권과 반칙 없는 청렴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성과 창출, 취약계층 권익의 최우선 보호, 국민소통창구 혁신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81&call_from=naver_news

2. 지속가능 기업의 가장 큰 명예 '비영리 로고 사용'

평창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는 세계적인 시계 제조사 오메가(Omega)가 맡았다. 오메가는 1848년 스위스에서 설립되어 1932년부터 모두 27번이나 올림픽 타임키퍼로 선정됐다. 그만큼 최고의 기술력과 정확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오메가는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인 ‘007시리즈’에서 주인공인 영국 해군 예비역 중령 ‘제임스 본드’가 이용한 첨단 시계로도 유명해졌다.

"오메가는 늘 그랬듯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보츠와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생동물 식물 프로젝트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역동적인 움직임

"굿플래닛" 타임피스에 케이스 뒷면에 굴림에 강한 동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여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광 불투 광택의 "GOODPLANET FOUNDATION" 문구가 인그레이빙되어 있습니다.

오메가가 올림픽 타임키퍼와 ‘제임스 본드 시계’라는 상징성 외에도 지금의 높은 명성을 얻게 된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기업 대부분이 꺼리는 것과 달리 자사의 주력 제품에 후원하는 기관명과 로고를 직접 새기고 적극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영향으로 오메가처럼 과감한 캠페인을 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인 ‘유엔’의 로고를 직접 새긴 기업들이 생겨났으며, 이들 기업은 전 세계 지속가능 경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03001224>

최근 동향 및 소식

3.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채용비리 피해자들 구제는?



20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 총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으로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다"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94#closed>

4. 레자 아닌 비건레더...'지속가능 패션' 입자



과거 '없어보임'의 대명사였던 인조가죽이나 인조털이 '힙'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고의류를 해체해 리디자인한 '업사이클링'도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속가능패션이 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다.

지속가능패션은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환경을 고려하는 패션을 추구한다. 산 채로 털이나 가죽이 벗겨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이 없도록, 팔리지도 않은 새 옷이 산업쓰레기로 분류돼 소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패션의 취지다.

일단 소재를 지칭하는 이름부터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속칭 '레자'로 불리던 인조가죽은 최근 '비건(Vegan) 레더'로 불린다. 비건은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계란, 우유 등 동물성 식재료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뜻한다.

동물의 털을 취하지 않은 퍼(Fur)는 '에코 퍼'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살아있는 밍크 등의 털을 강제로 벗겨내는 모습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모피 소비를 지양하자는 움직임은 점점 커지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01_000549233

윤리경영 실천 사례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Part 2

1. 부패방지 제도의 특징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정치리더십의 ‘강한 의지’

리더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일이며, 문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리더만이 가지는 독특한 재능인 것이다(Shein 1990: 26).

조직문화를 ‘리더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파괴되는 구성원들의 공유가치 및 행동체계’로 정의하여 살펴보면, 총리직속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 직원의 행동 강령에 있어서 공유가치(Shared Values)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성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천한다. 일단 신고 접수된 부패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청탁을 배격하며 독립적으로 과감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원들은 부패조사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 한 점은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원들은 직위의 특권을 사적이익 확보를 위해 이용하지 않는 열사봉공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해야 할일과 말아야 할일을 구분하여 공무원조직의 공유가치(Shared Values)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을 구분하여 공무원조직의 공유가치(Shared Values)로 삼고 있다. 해야 할 일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업무타당성에 관한 의문사항은 언제나 상사와 상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소속부서에 충성할 것과 소속부서의 최대이익에 부합한 행위를 할 것을 행동강령으로 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신의 봉급이외의 대가를 관련업자로부터 제공받지 말 것과 소속장 허가 없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뇌물을 받을시 보고하고 대민관계에 있어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할 것	① 자신의 업무에 대한 봉급이외의 수수료나 보상 그리고 시간외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말 것
② 가족의 이해와 관련 업무는 수행 포기할 것	② 공식문서에 고의로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내용을 넣지 말 것
③ 업무처리에 있어서 평등라고 공정할 것	③ 업무관계로 계약업자에게 무상서비스, 해외여행, 할부금 대신 지불 혹은 식사나 유희, 고용제의, 선물을 제공받지 말 것과 그들과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를 베풀지 말 것
④ 부패방지 조항과 행동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행동할 것	④ 업무와 관련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대하거나 그들 사업에 투자하지 말 것과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지 말 것
⑤ 업무타당성에 관한 의문사항은 상사와 상의할 것	⑤ 소속장 허가 없이 시간제부업 또는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⑥ 소속부서에 충성하며 소속부서의 최대이익에 부합한 행위를 할 것	⑥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장소나 계약업자의 사무실에서 계약업자와 공식 면담이나 협상을 하지 말 것과 그들과 관련된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지 말 것
	⑦ 업무를 회피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계약자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어 정부에 해가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

<싱가포르 공무원의 공유가치(Shared Values)>

윤리경영 실천 사례

시간제 부업이나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리관유는 부패척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부가 높은 윤리 기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확신과 결단력을 과시하며 출범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모든 범법자들을 예외 없이 다스릴만큼 강력하고 굳센 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 같은 좋은 의도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리관유 2001: 247).”

싱가포르의 경우 대통령에서부터 최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들은 재산현황에 대한 소명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받고도 부와 재산의 형식과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 경우 전액 몰수당한다. 또한 해당자는 가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싱가포르가 부정부패 방지에 철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질문에 리관유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무엇보다 먼저 부정부패특별법안과 같은 효율적인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정부 관리들이 본인 혹은 일가의 명의로 된 자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분명 부정으로 축적한 거라고 봐야죠(송선금 외 2000: 62. 재인용).

반면 재산감시와 가혹한 처벌의 방식과는 달리 처우 및 정당한 보수를 통한 '포상' 방식의 병행은 싱가포르의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부패방생이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부패에 대해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시킴으로써 부패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패방지를 위한 '완벽한 제도'와 정치지도자의 '부패척결의 굳센 의지'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2. 제도적 성공요인

리관유는 자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쉬운 판공비지출 특권을 없애버렸다. 싱가포르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자 일반국민들은 부패행위조사국(CPIB)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였다.

싱가포르에서 공동체주의적 처방이 성공한 이유는,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과 시스템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싱가포르도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정치인들은 경제인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청렴성을 유지하여 연고(혈연, 지연, 학연)의식, 패거리의 힘에 기초한 부패 행태인 정실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낳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정치지도자가 먼저 청렴성에 있어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에 충신했고, 관료들의 청렴성과 성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 시스템인 부패조사국(CPIB)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관료의 부패를 근절하여 거래비용을 없애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운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의 선물 및 향응도 받을 수 없다.

싱가포르가 공적 그리고 사적 부문에 있어서 부패척결에 성공한 요인은 첫째, 부패를 청산하려는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다. 둘째 싱가포르의 반부패법률은 적절하고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패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부패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고하, 정치적 연줄과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상수,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 리관유의 부패방지전략'

청렴 위반 사례

1 정치인에게 승진 청탁

6급 공무원 A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자신의 승진 순위가 낮은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A공무원 소속기관의 장과 친분이 있던 정치인에게 자신의 승진 임용을 부탁하였고, 정치인은 소속기관장에게 A공무원의 5급 승진을 청탁하여 승진하게 됨

시사점 :

- ① A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이 금지) 제1항 위반임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2013년 인사담당계장 A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 1순위자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여 탈락시키고 12순위자를 승진대상자로 선정함

시사점 :

- ① 인사담당 공무원이 승진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2항 위반임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지식마당

내부통제 – Separation of Duty

1. 내부통제란?

내부 통제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체제의 유지,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 및 절차 준수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 기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이다.

이러한 내부 통제는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프레임워크를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내부 통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알아보는데, 바로 업무 분장이다.

2. 업무 분장(SoD: Separation of Duty)

개념

업무 분장(Segregation of Duties)는 하나의 업무 절차를 두 사람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Separation of Powers라고 부르기도 한다.

뉴스에서 중소기업의 경리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돈을 받는 사람과 이를 기록하는 사람의 직무를 분리하는 것이다. 직무를 분리하면 돈을 받아 통장에 넣는 사람은 장부와 통장의 잔고를 일치시켜야 되므로 돈을 횡령할 수 없고,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만질 수 없으므로 돈을 횡령할 수 없게 된다.

업무 분장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념에서 살펴보면 상당한 아이디어가 요구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돈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회사의 인원이 충분치 않거나 업무상 이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행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은 동일인으로 관리하더라도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것은 속제를 하는 사람과 이를 검사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일반 비즈니스 및 회계 응용

SoD라는 용어는 이미 재무 회계 시스템에서 잘 알려져 있다. 모든 규모의 회사는 수표 수령 (계정 지불) 및 상각 승인, 현금 입금 및 은행 계좌 명세서 조정, 근무 시간 기록 카드 승인 및 수표 확인 처리 등과 같은 역할을 분리한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기능과 명칭이 다를 수 있다. 직무를 분리 할 수 없는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은 기존에 존재하거나 잠재적 통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다. 한 사람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 또는 부정 행위를 수행하고 은폐할 수 있다면, 해당 업무는 직무 분리를 통해 부여받아야 한다. 다음은 업무 분장을 강제하는 것에도움을 줄 수 있는 몇가지 통제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 1) **감사 추적:** 트랜잭션의 흐름에 대해 TI관리자나 감사인이 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2) **응용 프로그램의 재조정과 독립적인 확인 절차:** 응용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절차로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지식마당

- 3) **예외 보고서:**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된 예외사항을 기록한 증빙에 의해 뒷받침된 것으로, 관리자 수준에서 처리되고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서명이 필수적이다.
- 4) **로그 유지 및 관리:** 처리 된 모든 시스템 명령 또는 응용 프로그램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수동 또는 자동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 트랜잭션 로그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 5) **관리자 검토:** 관리자 검토는 관찰과 조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 6) **독립적 검토:**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실수나 의도적인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토가 권장됩니다. 이러한 검토는 오류 및 부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참고사항 – COSO Framework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는 1985년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FEI, IIA, IMA의 5개의 민간 단체가 공동 설립한 조직이다.



<COSO Framework Cube>

이런 COSO의 Internal Control Framework는 통제 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구성요소	상세 내역
통제 환경	구성원의 적합성, 정도경영,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조직의 리더에 의해 설정된 조직의 통제 전반
위험 평가	회사의 목적달성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관련 위험식별 및 평가
통제 활동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마련된 절차와 정책 및 통제를 위한 제반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의 관리 및 구성원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준내역
모니터링	내부통제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Protiviti, “The Updated COSO Internal Control Framework: Frequently Asked Questions, Third Edition”
 네이버 지식백과, “COSO”
 네이버 지식백과, “직무 분리”
 네이버 지식백과, “내부 통제”
 위키피디아, “Separation of Duties”
 COSO, “COSO ERM Framework”

Quiz

1. 다음 중 업무 분장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둘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 ②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 ③ 하나의 업무 절차를 두 사람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분리하는 것
- ④ 하나의 업무 절차를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

2. 다음 중 COSO Framework의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Control Activities
- ② Monitoring Activities
- ③ Information & Separation
- ④ Control Environment

3. 다음 중 업무 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 추적
- ② 현황분석서
- ③ 독립적 검토
- ④ 관리자 검토

4. 다음 중 COSO Framework 구성요소와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제환경: 구성원의 적합성, 정도경영,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조직의 리더에 의해 설정된 조직의 통제 전반
- ② 위험평가: 회사의 목적달성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관련 위험식별 및 평가
- ③ 통제활동: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마련된 절차와 정책 및 통제를 위한 제반활동
- ④ 중요도 설정: 내부통제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 1. 답 ③ 하나의 업무 절차를 두 사람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분리하는 것
- 2. 답 ③ Information & Separation
- 3. 답 ② 현황분석서
- 4. 답 ④ 중요도 설정: 내부통제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행사

1.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설명회 ‘개최’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신고처리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서울·인천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7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서울·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강원 등 권역별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비롯해 공익신고 및 제보성 민원 접수·처리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업무담당자의 신고자 정보 노출 및 처벌 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접수·처리되는 ‘신고성 민원’의 처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할 계획이다.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41237>

2. SUMMIT SUSTAINABILITY RESULTS REPORT



Outline

Date : March 6-7, 2019

venue : HILTON TOKYO ODAIBA

Convenor : Hakyten Corporation

Sustainable Life Media, Inc.

Contents : Plenary Sessions, Breakout Sessions, Workshop, Activation Hub

※ SB'18 Tokyo

1,646 people from 423 organizations including enterprise, academia, and NPO/NGO joined SB'18 Tokyo.

※ SB'18 Tokyo Attendee Profile

The Sustainable Brands Community of change-makers shares a passion for purpose and a desire to drive breakthrough sustainability-led brand innovation. People attend from across disciplines and over 62% are influential decision makers who are leading their companies by testing new ideas and adopting new tools.

<http://www.sustainablebrands.jp/event/sbt2019/en/about.html>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